

# 평화맨션 재건축 '산넘어 산'

〈광주 중흥동〉

### 176세대중 140세대 부지만 확보...시공사 "사업성 없다"

### 주택 임차비 용자 지원도 B동 60세대만 해당...주민간 갈등도

붕괴 위험으로 광주시 북구 평화맨션 입주민들이 집을 떠나 흩어져 생활한지 2년째가 돼가고 있지만 새로운 보금자리 계획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추진위를 꾸려 새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비좁은 대지면적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도 일고 있다.

평화맨션 재건축은 지난 2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지정된 소규모 주택(300세대 또는 대지면적 1만㎡ 미만의 용적률을 현행 220%에서 250%까지 올리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추진위는 대안으로 주변 8필지를 재건축 사업에 포함시켜 A동과 B동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변 8필지를 확보하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도로를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지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8필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과 향후 행정 절차 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북구청과 평화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추진위 총회에서 선정한 설계업체, 정비사업업체 등과 최근 가설계를 해본 결과 '현 상태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평화맨션 부지(6873㎡)는 전체 입주민들의 세대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평화맨션 2개 동 전체 입주민들은 176세대(A동 112세대, B동 60세대, 상가 4세대)다. 하지만 가설계에서는 140여세대 밖에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적은 대지면적과 함께 A동과 B동을 가로지르는 도로(길이 101m, 폭 6m)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입주민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걸림돌이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B동 입주민은 모두 집을 비웠지만 '대피명령' 내려지지 않은 A동의 60여세대는 아직도 '갈 곳이 없다'며 떠나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시가 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주택 임차비용 용자'도 현재는 대피명령이 내려진 B동 입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다. 주택 임차비용 용자가 대피명령이 내려진 세대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176세대는 확보돼야 한다"며 "예상을 했지만 이 세대마저 안 나온다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서 몇 곳의 시공사와 재건축을 위한 접촉을 했지만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재건축의 사업의 사업성이 문제다"며 "시공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 세대 이상을 만들어 분양을 통한 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주택 임차비용 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피명령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모두 집을 떠나야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981년 준공된 평화맨션은 지난 2014년 7월 지하기둥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철거 후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A동 입주민들이 주택 임차비용 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피명령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모두 집을 떠나야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981년 준공된 평화맨션은 지난 2014년 7월 지하기둥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철거 후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광주 어르신들 "韓-中은 친구"

16일 광주시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한·중문화교류 행사에서 광주 어르신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태극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들고 춤을 추고 있다. 이날 행사는 5박6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중국 흑룡강성 어르신 130여명과 광주 어르신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당혹' 채용 비리 의혹 교감 직위해제에 교육부 '부당' 통보

광주시교육청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중학교 교감을 직위해제했다가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라는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감 직을 다시 맡도록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산하기관 파견을 명령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직위해제됐던 광주 모 중학교 A(54) 교감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직위해제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A 교감에 대해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감으로 복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파견을 명령했다.

한편, A 교감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브로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상습사기)로 올 초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교육청은 그러나 A 교감에 대해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감으로 복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파견을 명령했다.

한편, A 교감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브로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상습사기)로 올 초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16년전 '약촌 오거리 사건' 진실 밝혀질까

### 광주고법 재심 첫 공판...당시 16세 소년 택시기사 살해 혐의 10년 복역

### 형사사건 이례적...다음달 21일 2차

"무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 과정을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가혹수사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경찰과 진범을 풀어준 검찰의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경찰 등 사건 관련자 2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를 서면 대체할 것을 제시했다.

최씨(당시 16세)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2010년 만기출소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오전 광주고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최모(3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 공판을 열고 향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혐의에 다음달 21일 오후 4시 3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이때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고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법정진술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감압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에 의한 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기존 증거 능력을 전부 재심하고 당시 수사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씨 등 관련자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 관련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입수되는 등의 의혹은 계속됐다. 특히 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특히 이 사건은 시국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의 재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 오늘의 날씨

19일부터 장마

맑겠지만 낮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성
맑음	19/30	맑음	19/27	맑음	19/28	맑음	19/31	맑음	18/29
보름	16/29	보름	18/31	보름	17/29	보름	18/27	보름	17/30
맑음	18/31	맑음	17/29	맑음	18/29	맑음	18/27	맑음	17/30
맑음	18/29	맑음	17/29	맑음	18/29	맑음	18/27	맑음	17/30
맑음	16/31	맑음	18/27	맑음	18/29	맑음	18/27	맑음	17/30
맑음	17/29	맑음	17/30	맑음	18/29	맑음	18/27	맑음	17/30
맑음	17/30	맑음	18/27	맑음	18/29	맑음	18/27	맑음	17/30
맑음	16/30	맑음	18/27	맑음	18/29	맑음	18/27	맑음	17/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남서~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남서~서 0.5~1.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생활지수	지외선	미세먼지
식중독	주의	보통
자외선	매우높음	보통

주간 날씨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날씨	☀️	☁️	☁️	☀️	☀️	☁️	☀️
기온	19/30	20/29	20/27	21/29	21/26	21/27	21/28

## 관절을 위한 선택! 백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위한

관절, 연골,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MSM 2,000 mg 함유!**

연어코연골 추출물 (부원료)

프로테오글리칸 함유  
비변성 2형 콜라겐 함유

히알루론산, 상어연골분말, 해조칼슘, 비타민D (부원료)

1,200 mg x 120 정 (2개월 분)

# 백년백세관절

비타민하우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